朝鮮日報

本紙六面

發行人 安在鴻 編輯人 白寬洙 印刷人 [illegible]
發行所 朝鮮日報社

社說

青年運動의方向轉換

一

朝鮮의新興運動은 過渡하고잇다 自然生長的運動에서目的意識的運動으로 經濟的鬪爭에서政治的鬪爭으로 部分的運動에서全民族的運動으로의標語는 모든新興運動에잇서서 다가티高調되며잇거니와 特히靑年運動에잇서 이와가튼現像이더욱顯著하다 할수잇스니 그것은現在의朝鮮에잇서서 靑年運動이非但全體運動中의 가장重要한部門을占領하고잇슬뿐아니라特히靑年은年少氣銳한그만티進展性과感受性이 가장豐富한外닭이다

二

朝鮮靑年運動의總本營인 朝鮮靑年總同盟에서는 지낸七日에常務委員會를열어서第三期新任執行委員과 새로이通過된規約을發表하엿는바 來三十日에는第一次委員會가開催되어새로운運動方針을 樹立하게되리라 하며 朝鮮新興靑年運動의嚆矢인 團體인서울靑年會에서는 第五回定期總會를開催하야 會員整理其他를 議決하엿다하고 近日地方團體의記事를본다면 到處에서靑年團體大會或은執行委員會가開催되는데 大槪는 方向轉換或은 革新의決議를 하고잇다 서울靑年會及敎化靑年會에依하야 京城靑年運動者懇親會가 發起準備中이고 江原靑年聯盟의革新大會가 準備進行中이라하니 이에依하야 그의 一般을推知할수잇슬것이다

三

過去朝鮮의靑年運動은 歷史가 쌰르고 朝鮮의經濟的政治的環境이 特殊한관치 그의組織 …

… 오래前부터의計劃인同時에 新規約의精神이라하며 第三期新任委員은 完全히派閥을超越하야 銓衡되엇다하니 靑總第三期新任委員에依하야 朝鮮의靑年運動은 方向轉換의過程을 無難히過程하게되기를 바라고또 잇바다

武南兩派의 妥協交涉急速進行

第四全體會議서決定

武漢軍南京入이難問題일듯

(漢口十五日發) 武漢派와南京派와의妥協交涉은急速히進展되어九月十五日에열리는第四次國民黨全體會議에서決定하게되엇는바不遠間九江에來着할南京派代表胡宗鐸氏를漢口로招請하야諸般의豫備交涉을行할터이며全體會議는南京에서開催될듯하며이에對하야目下의難關은武漢派出席에際하야護衛의意味로武漢軍이南京에들어올諒解가잇는듯하더라

武漢代表送船要求

(上海二十日發) 武漢政府代表譚延闓、孫科氏等은十七日南京政府의何應欽、李宗仁、白崇禧氏에게近近南京에가서軍事、政治、一切에對하야協議하겟스니汽船二隻을派送하여달라고要請하얏더라

南京政府取消要求

統一機關은二를不許

武漢中央執行委員會에서通電

(漢口十四日發) 武漢派中央執行委員會는全國黨員에게左와如한通電을發하얏더라

南昌에가서謀叛하고良民을 屠殺하니今後의國、共兩黨의關係는完全히脫離되엇스나本黨은다시重大한危機에瀕하얏스니共產黨問題는解決되엇스나黨員의分裂問題는解決되지못하엿다武漢國民政府中央黨部는全國統一의機關이다 이것의一이잇고二가잇슴을不評하는것임으로吾人으로서는조치못한것이잇슬것가트면全體會議에서決定할것으로中央黨部와國民政府를不關하고南京政府를認定하야武漢政府에抵抗할것가트면將來第三第四의政府와黨部가輩出할터이다 黨이分立하면國家도危險하게될가두려워한다個人間의感情을가지고싸울여가아니다지금中央黨部는一個月內에第四次中央全體會議를開하기로決하엿다凡我同志는黨內一切의糾紛을此會議에서解決되기를求할것이나爲先自立한黨部及政府는迅速히取消할것이오武漢의國民政府中央黨部에서萬若조치못한일이잇스면이會議에서處分을受할것이며組織을變更할必要가잇스면이會議에提出하야解決할것이다今日分裂의危機를挽回함에는他方法이업고다만和平解決을計劃할것뿐이라하노라

鎭江은遂平穩

(鎭江十八日發) 目下當地는平穩하나十一日招商局汽船及民 … 입으로馮玉祥氏의武漢占領과共히蔣氏는復活하게되리라더라

唐生智氏

湖北實權掌握

東南討伐指揮任命

(湖北十八日發) 湖北省防軍人民自衛團、各縣警備隊等一切는十五日부터湖北省政府及軍事委員會의統轄에歸한바이것은湖北全省의兵權이事實上 唐生智氏의手中에入한것인데唐氏는十六日에何健氏로東南討伐左翼總指揮 劉興氏로同右翼總指揮에任命하얏더라

蔣氏復活은

馮氏의武漢占領後

(鄭州十八日發) 河南에잇는馮玉祥氏는最近軍隊의一部를京漢線으로부터湖北에移動하는中인데이와가티馮氏가武漢에對한從來의態度를變함에對하야는여러가지의觀測이잇스나某消息의觀測에依하면馮氏가武漢政府와의約束을破棄하고武漢에進出하게된것은蔣介石氏와完全한諒解가成立한結果이다即今番蔣介石氏가下野하게된것은決코蔣氏의沒落은아니오態度不鮮明한武漢政府의一部와唐生智氏等을排斥하고武漢派와南京派와의團結을堅實히하라는一時的下野인바이에蔣介石氏와馮玉祥氏와의사이에는諒解가成立되엇스니即蔣介石氏는武漢政府의外剛的面目을保持코저하면서下野하고馮玉祥氏가武漢에進出한後馮玉祥氏의要請에依하야蔣介石氏가再起하는形式을取하야國民黨의大同團結을엇고다시北伐을決行하라는것이라

船舶業者大盟罷

附加稅의强制徵收로

(東京電) 外務省着電에依하면蔣介石氏下野後廣東에서는武漢과南京兩派가一體가되어北伐을새約하고北伐軍費를捻出하려고一般船舶規則을設定하야小하면汽船으로부터大하면汽船에이르기까지最低二元으로부터五百元外지의稅를附加하기로되엇슴으로內外關係業者는猛烈히反對하고特히强制로徵收하면一齊히反抗할氣勢를示하고小船舶業者는一齊히同盟罷業을하야僻地와의水路交通은全部停止가되어官憲도크게狼狽를하고잇스며一方領事團은此結果通商貿易上妨害를바등으로中國官憲에게對하야嚴重한警告를發하엿더라

楊張等妥協派

時局大會議開催

根本的解決策을討議

(北京十九日發) 楊宇霆、張學良氏等의妥協派는時局의根本的解決策으로서奉天派의軍事會議를擴大하고奉天 山西 南京及孫傳芳 張宗昌氏等의各方面代表를網羅한一大時局會議를開할것이라고主張하야이미張作霖氏의贊成을得하얏슴으로楊宇霆氏의名에依하야各方面에招電을發하엿더라

北方의

軍事方向

潘總理談

(北京十七日發) 總理潘復氏는各方面에對한北軍의軍事行動에對하야語하되

津浦線方面 孫傳芳軍은이미蚌埠淸江浦線을突破하고浦口外지到達하야江南에侵入하라는希望을가지고잇슴으로中央도大體孫의適宜한採量에맛길터이다

京漢線方面 河南侵入의準備를急急히하는中인바張宗昌氏等巨頭와가티開催될最高軍事會議에서決定될터이며

隴海線方面 直魯聯軍으로서開封의馮玉祥軍에對하야進擊中이다山西方面閻錫山氏가馮玉祥과提携만하지안흐면山西에는進軍치안흐리라고하더라

對南方策協議

南北妥協을完成코저

(北京十九日發) 張宗昌氏及孫傳芳氏代表는十九日北京에到着하엿슴으로奉天派의對南方策協議最高幹部會는二十日에開會하기로決하엿는바同會議의中心問題는南京上海攻略問題、對馮玉祥問題、南北妥協問題等인바奉天派幹部는蔣介石失脚後라고하더라도赤化討伐精神을基礎로서將個人의意志를尊重히하야南北妥協을完成하려고하는데河成濬方本仁氏等이突然入京한것은此消息을證하는바이라고하더라

002870

帝露外相의

大戰原因論

視聽惹起

(나우엔十八日發) 露西亞帝政時代의外相「사사노푸」氏는大戰勃發의原因에對하야 一論文을巴里에서發表하야 目下世人의視聽을惹起中이더라

戒嚴中의鎭江

(上海十八日發) 鎭江來電에依하면揚州方面及上流로부터敗退兵數萬이市中에充滿하야戒嚴令을發布하야市中은搖動의빗에싸이고外人의家宅全部는兵士에올바뎟스나損害는업더라

彈雨中의南京城

死守?引渡?運命切迫

(上海十九日發) 南軍은北軍의南京城의引渡要求를峻拒할것은南軍은기어히南京을死守하라는것이라하며一說에依하면孫傳芳氏對馮玉祥氏와何應欽氏와의南京引渡에關한商議는決定되지안코繼續하야交涉을하는貌樣이라더라

孫軍占領은

時日問題뿐

(上海十九日發) 浦口를占領한孫傳芳軍의南京占領과上海의支配는時日問題로 보이는바上海附近에서現在戰意를失한南軍과孫軍間에는戰爭이이러나리라고생각지안는다孫氏는元來穩健한政策을가지고잇는外닭에不當課稅徵收等으로內外人에게苦痛을주지안흐리라고하야上海에서孫氏의人氣는良好하더라

南軍諸將이約降

(東京電) 濟南發某所着電에依하면南軍의賀耀組、白寶山、陳調元等의密使는全部徐州에到着하야北軍에投降을約한結果不遠間此等諸將은北軍에게投하리라고一般은觀測하더라

上海爭奪戰

南軍諸將間에方開始

(上海十八日發) 南軍各將領間에上海爭奪戰이일어나고共產黨에서도種種劃策을하는模樣인데近近事件이勃發할지도未知이며出發은延期된模樣이더라

鳳陽丸을襲擊

南軍敗兵이

(上海十九日發) 鎭江發電에依하면十八日午後七時鎭江에碇泊中이든日淸汽船會社鳳陽丸(三九七七噸)에中國人無賴漢이無作하엿는데그들은南軍의敗兵들이어와쓰少한일로船員과싸홈을誘來하야同船을包圍하고一等運轉手長谷川某氏를打擊하야重傷을시키고南京田島領事代理의重要書類를携帶하고上海로가는途中인書記生某를射殺을하게占領되엇더라

船으로當地에歸來한南軍兵約六七千名으로거의武器를携帶치못하고또負傷者가多한바日淸汽船會社의話에依하면南京에서射擊汽船은眞儀에서乘船한士兵에게脅迫을當하고또鳳陽及巴東에서軍隊의不法乘船과射擊을受하엿더라

大馬賊團出現

鞍山方面에

(奉天十九日發) 鞍山遼陽方面에出沒하야掠奪을擅行하야中國官憲으로엇지할줄을모르게하는百五十名으로된大馬賊團은十八日正午千山의無量觀에서靑天白日旗를揭揚하엿는데그旗에는天下第一軍이라고하얏더라

러고하엿는데이急報를바든日本軍艦에서三十名의陸戰隊가二隻의「산르」를라고後援하러向한外에南軍敗兵과無賴漢은그대로逃走하엿더라

日中交涉停頓

楊氏反對로

(北京十九日發) 現代理公使는最近에數回나大元帥府를訪問하고

一、奉天驛救濟

二、東三省鐵道敷設權

三、吉林의山林及鑛山權

에關하야奉天派와協議中이나바草案이成立되엇스나張作霖氏等의贊成에對하야楊宇霆氏의反對로停頓되엇다더라

勞農政府에

不忠敎職放逐

全露敎會都司敎宣言

(莫斯科十九日發) 全露敎會의首首인首都司敎及「오웨」의首都部大僧正五名은今日聯名으로宣言을發하야正敎의敎職員敎會員은全部勞農政府에忠誠을다하되萬若忠誠을缺하는者는國外에放逐할旨를明白히하엿더라

四川軍隊

伊汽船射擊

土匪도脅迫

(東京電) 宜昌發某處着電에依하면十五日下航하여온伊太利 …

兩艦隊改編統一

渤海=東北=

外人과生事者는嚴罰

(東京電) 外務省着電에依하면張宗昌氏는十八日再次濟南에歸하엿는데出發에際하야中國艦隊에左와如히訓示하엿더라

中國艦隊는近來全혀統一과節制가업서不正行爲를敢行하는者外지잇다余는北京의命令을奉하야渤海艦隊及東北艦隊를改하야第一第二艦隊로하고鎭副司令으로서統一케하엿슴으로各員은眞心으로努力하기를바란다萬若外人에게事件을이르키는者가잇스면即時嚴罰에處할터이다

또陳司令은十八日靑島에司令部를設置하얏더라

山東遣軍의

靴木縫工二百

歸還키로決定

(東京電) 山東에派遣된姬路第十師團靴工木工縫工二百名은二十一日靑島發歸國하기로決하엿다右는現地에잇서서는充分히敎育할수가업는外닭이더라

後援會에서는 … 外交後援會에際援하고同會와步調를同一히할것을決議하엿다

로請하는旨를附言한電文을發送하엿다또한同日午前十一時부터總商會에서全省醫師公會가開催되엇는바排日運動에對하야協議

兩軍隔江發砲

南軍五萬鎭江總退却

(上海十九日發) 鎭江發某所着電에依하면十八日午前十時揚子江以北의南軍約五萬은全部鎭江으로退却하엿는데正午頃外지孫傳芳軍의太部隊는楊子江北岸에出現하야南軍에게向하야射擊을開始하고南軍도또한此에應戰하야午後八時에이르도록孫軍은野砲로서鎭江側의南京隊에向하야砲擊을開始한外닭에鎭江市內의困難은極度에達하엿다鎭江在留日本人은十八日夕刻外지全部日本驅逐艦에收容되엇더라

即時撤還은困難

二大事情으로그런듯

(東京電) 山東撤兵問題는二十四日閣議에서多少間問題가될지도未知이나即時撤兵하기는困難한模樣이다其原因은여러가지가잇스나主要한事情은左의二項이더라

一、蔣介石氏引退의結果南軍의形勢는不利하게되어孫軍으로부터南京明渡를要求中인바中國의事情은全혀豫想하기어렵고最近의情報로보면南軍이勢力을回復할形勢도一部에는濟起中임으로此에及할對策을講究치안흐면안되겟거나

一、陸軍의滿洲駐屯軍은交代期가된것을그대로用兵을하고잇슴으로萬若撤兵한다고하면即時日本에撤歸시키고交代兵을滿洲에派送하기로되므로其結果一時에만흔兵을出動하야中

國側의誤解를招할憂慮가잇슴으로撤兵의時期를定할것은此際를當하야日本으로서는大端히困難하다

後援會

地方的活動

排日外交

(奉天十九日發) 奉天全省排日○○○○○○○外交後援會로부터온電報에對하야各縣下及吉林黑龍江兩省에서도同支部를設置하고今後一切奉天本部의指揮에딸아地方的活動을할旨의返電이잇는데同會는目下哈爾賓視察中인森外務次官이歸途할때에代表를會見시키어諸種目的에對하야陳辯하기로決定하엿더라

◇排日感情

紙上煽動◇

(奉天十九日發) 官憲에게直接運動의阻止를當한排日外交後援會에서는今後는消極的手段即新聞紙上으로排日感情을煽動하기로하고昨日全省五十七縣知事에게對하야會의成立主旨及方法과各縣民에게充分히示達할것으

삿고、반젯틔兩人의

死刑執行은

二三日中이라고

(포스톤十九日發) 殺人犯이라는嫌疑를밧는伊太利系無政府主義者『삿코』『반젯틔』兩人은畢竟二三日中에死刑을執行하리라더라

別報 (『포스톤』十九日發) 米國『마샤츄셋스』大審院은今日伊太利無政府主義者『삿고』『반젯틔』二名의再審申請을却下한外닭에二名은畢竟九月二日電氣倚子에올러안지안흐면안되게되엇다二名은大審院에서決定을들이어줄써에絕望的絕叫를하엿다 『반젯틔』는大膽으로 「余는알고잇섯다豫期하고잇섯다 어느뉘가百萬人을動員하야우리를求援하여주지못할가』 라고부르지젓더라

拓殖省設置와

朝鮮關係

注目할것

拓殖省設置案은中央의行政整理會에서可能性이잇서具體的으로要綱의計上如何에對하야臺灣前田法制局長官은明年度豫算에所要經費의計上如何에對하야廳議하게되엇는데田中首相과協議하게되엇는데此가實現되기外지는多少의迂餘曲折을未免하더라도拓殖省設置의時에各種方面에利害와影響이가상만흔곳은朝鮮總督府임으로是等의關係如何에就하야는政治的이나官制에不少한變革과改正이當然잇슬것을豫想하고該省設置의時는當然朝鮮統治上의議會에對한一部實任을代表하게되는이以上總督以外에親任官의政務總監을設置할必要가잇는與否가이미論議되어잇는程度임으로總督府部內에서도其進行에對하야는深甚의注意를한다 即

(一) 該省設置의後에朝鮮總督府의現行官制에變革改正이업슬가또其程度如何

(二) 此와同時에總督及總監의更迭을豫想하지안어도可할가

(三) 各種의事業에對하야豫算關係如何라는點을主要한者라하야極히微妙한推測을하면서其成行을注目하더라

小作問題의

經濟學的一考察 (二)

米國위스콘신大學에서 MS 李勳求

그러면이와가티土地가自由財貨로부터 經濟財貨가되엇다하더라도 地代의發生은웨되나그原因이어대잇나하는것이 問題이다 이地代라는用語에對하야이問題를 解明하기前에不可不말하지아니하면아니되겟다 그것은이地代라는말이 比較的新用語로된우리의말이라 他邦으로부터流入한말인故로 二意義를確定할必要가잇다 곳地代라는用語는 原來英語의『렌트』를語의『렌트』을 日本人이飜譯하야國語의名辭를 만드른것으로우리가仍用하게된것인데 우리나라말로 地代의內容을表示하는말은『영쇠』或은『영세』等語라고할수잇다 곳他人의土地를利用함으로 그利用에對한報償을意味함이다 다시上段에提起한問題로돌어가서이地代곳『영쇠』는 웨發生되나原因의如何를質問말하겟다 그러나또다시이곳에서말할것은 所謂契約地代와經濟地代의區別이다 前者는契約自由의原則에依하야法理的根據로 土地를利用하는사람이土地所有者에게 그利用의代價으로一定한 報酬를約束한것이니 그럼으로이것은契約的保證을밧는것이요 後者는經濟上原則으로 土地利用者가土地所有者에게영세를 주지아니하면아니될理由로부터 나는것이다 그럼으로 契約地代와經濟地代가一定한土地에對하야 반드시一致되지안는것은 勿論이어니와그本質上으로보아서 前者는第二次的이며 誘導的이오後者는第一次的이며原始的이다벌서아이곳에서는 後者인經濟地代를討明하라고한다

오늘날 누구나經濟原論을一讀한사람은 다아는바와가티이地代에對하야 저有名한『리카도』氏의說明이잇다 英國의古典學派는다이學說을 主張하엿스며 支持하엿다 今日米國經濟學界의泰斗로 名聲이놉흔『일리』氏의定義를보면 『엇던土地의地代는그土地에가장有利한勞力과資本을應用함으로 因하야어든生產物의貨幣價値와 또는耕境에잇는 或은集的限界에잇는 土地에同量의勞力과資本을 應用함으로因하야 어든生產物의貨幣價値와의差로서測定한다』 하엿다

이定義 는저耕境이라는土地利用上限界를標準으로하며無地代의土地를 想像的前提로하고 集約的耕境說을唱道한『안더손』氏의學說과 粗拔的耕境說을唱道한『웨스트』氏의 學說을總合하야 地代에關한學說을誘導한『리카도』氏의 所論의骨子라고할수잇다 곳알기쉽게말하면엇던土地와土地사이에 沃度의差異와位置의 差異로因하야 生產物의收穫量이差異가난는데 이差異는곳經濟的地代가되는것이라는것이다 다시例를들어말하면 深山窮谷에岩石이崎嶇한사이에잇는火田이나또는海岸에잇는 干潟地와門前沃畓과 이사이에는아무리同量의勞力과 資本을들이어耕作한다할지라도 生產物의分量곳우리의普通말로『소출』이 判異하게다를것이오 이生產物分量의差異는곳地代라는말이다 上述한바火田이나干潟地는곳『리카도』派의말하는바耕境이다곳集約的으로나 또는粗拔的으로나 耕作의限界며 또肥沃度나또位置交通의便否로보아서나 耕作의限界다

오늘날 이地代學說에 對하야 反對하는學者가여럿이잇다 곳『바스티에』와가튼사람은 反對하고 또澳太利學派의明星이녀『칼멩가』氏와가튼이는無地代의土地가어대잇느냐는見地下에反對하엿스며또佛蘭西의無政府主義者의元祖인『푸로도혼』氏는『財產所有는强盜』실이라는 見地下에絕對的反對하엿다 그러나一般的으로보아서 『리카도』의地代學說은 오늘날經濟學界에서是認한다 다시年近한例를들어말하면 엇던村落압헤여러자리의논이잇는데 甲의자리는每斗落에同一한分量의肥料와밋其他耕耘管理를하여서 三石의所出이잇스며 乙의자리는 每斗落에甲의자리와 同一한分量의肥料와밋其他耕耘管理를하여도 二石의所出밧게는 더나지아니하며 丙의자리는 每斗落에甲乙의자리와꼭가튼肥料 耕耘管理를하여도所出이 一石에不過한다 假定하고이에한

人事消息

▲李晟煥氏(朝鮮農民社主幹)農民運動視察키爲하야十八日夜咸南地方出張

八面鋒

○ 武漢政府는、全國統一機關은둘이업스니、南京政府를取消하라고、天無二日이란意味로군

○ 그러면北京政府에도、取消를要求할수잇슬가、어서內爭은그만두고、北伐이나힘쓰지

○ 拓殖省設置問題가나자、朝鮮總督府안에는、恐氣가緊張하다고、무슨外닭일가

○ 그리하야制度의變更、權限의伸縮、總督、總監의更迭에、모다關心된다고、아무래도朝鮮人의生存的問題에는、別것업슬것이니外、두고볼것뿐이지

四十名警官隊와四名拳銃隊 三十分間猛烈한實彈戰!

수진면에나타난에는맹렬한교화까지 사격하다보니어느틈에안보인권총대

白晝市街에橫行하기까지의詳報

신출귀몰한권총대는 엄마권의주군고관면(義州郡古館面)에출현하야 평북룡천군양평면 (平北龍川郡楊光面) 으로가는 길을쯧고종적을감추엇슴으로 사오백명의수색대는의주룡천량군을거미줄놋이도경계선을치고수색에 분주하던중지난십오일의주군수진면운천동 (水鎭面雲川洞) 부호안만년(安萬年)(三○)의집에네명이침입하야 군자금천원을청구하엿스나마츰현금이업스매할수업시십칠일오권한시에 밧기로약속을한후종적을 감추어버리자 권긔안씨는급속히 의주경찰서에급도하야 무장경관사십여명이출동하야 부근에매복하고 기다리든중과연그때에이르러각각『모델식』권총을 휴대하고마음노코들어옴으로경관대는일시에소리를지르며총을 란사한즉그들은 조금도두려워하지안코마조발사하야약삼십분간이나 맹렬한접전을하얏스나 그들이총소리가업슴으로 경관들이총노키를 그치고본즉어느틈에다라낫슴으로경관들은닭쫏든개모양으로한울만처다볼뿐이고 어데로갓는지종적이망연함으로 수색대는부근산을권부포위하고 엄밀히수색하든중그들이어느곳에숨어잇섯는지모르나 지난십팔일이의주장날임을긔회로네명중두명이 대담하게도로동자모양으로 허술한조선복에운동화를신고 가슴에권총을품은 후오후두시반에의주룡만금융조합(龍灣金融組合)에이르러한명은밧게섯고한명은들어와 마음노코사무를보고잇는 동조합리사안면(岸田)씨에게 권총을내어대이며류창한일본말로돈을내지안흐면죽인다위협하매리사는 별별떠듬고문을여는체하다가 갑작이문을열고밧갓트로다라난즉그는즉시리사를향하고발사하매 리사는맛지안코부근거리로지나가든 보통학교학생만마저죽고리사는몸을감춘사이에그들은 백주입에도조금두려워하지안코사무실에들어가 약천원을가지고 유유히종적을감추엇는데그때마츰경찰서 순사권부는수진면에나가고네다섯명이남아잇다가급보를 접하고현장에갓섯스나수만호장군중에누가누구인지 모르게되어종적을일코말앗는데 그들은 또다시읍내구성동(邑內舊城洞)주뎜(酒店)김재권(金轉建)의집에침입하야 돈을내라하얏스나돈이업슴으로 권총을발사하매지내가든조선사람이부상하얏고 수목이울창한통군뎡(統軍亭)으로 종적을감추고말엇는데 이소식을수색대에말하야떠백명의수색대는 읍내에달려와엄밀히부근을수색하나아즉까지 어데로갓는지종적조차모르는중인데 그와가티 대담하게도백주장거리에침입하얏슴을보고 인심은흉흉한중이며의주는××상태와갓다 더라(의주)

우라하고 귀성방면으로 총적을감추엇다는데 듯는바에 의하면 그중 두사람은얼마권부터 로동자모양으로 그곳에와서 류하든사람이라더라

銀行、金組警戒 각촌에경관대파송

옥천면월오동에○○단이출현하엿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선천서에서는만일을념려하야경관대를 사대로 난호와각촌으로보내며 은행과 금융조합소압흘경계중이라더라(선천)

天摩山根據의 正義府員一隊?

가산면에서두명살해사건과동계 義州署虛弱을보고出現

◇…出沒하는拳銃隊딸아 申特派員發電

십팔일의주(義州)에서 금융조합(金融組合)을습격한○○단은 칠월이십일의주군가산면방산동(義州郡加山面方山洞)에서 두사람을죽인 정의부원(正義府員)두사람이바 의주(義州)와구성(龜城)과및삭주(朔州)사이에 걸처잇는텬마산(天摩山)을근거로하야지난십오일에는 의주귀수진면와룡동황운긔(義州郡水鎭面臥龍洞黃雲起)의집에서 현금백원을강탈한바 이금보를들은의주경찰서(義州警察署)에서는 저원이총출동하야 그들을수사중이고 본서에는불과열다섯명의 경관이남어잇슬뿐이엇는데 권긔두명의○○단은 이미의주경찰서에 경관이얼마잇지아니한것을 아는동시에 십팔일에는 마츰의주장날(市日)임으로 시내가복잡한틈을타서금융조합(金融組合)을 습격하야 마츰잇든 딸백구십이원구십칠전을 강탈한후 동조합리사(組合理事)에게향하야 권총을발사하얏스나탄환이빗나가서마츰그부근에잇던의주공보(義州公普)오년생황하정(黃河庭)에게 그탄환이맛게되어 십구일아츰에 사망하얏고또그부근에잇던 농부한명도중상하엿더라

警務課長外지出動

이러한소동이 일어나자 의주경찰서(義州警察署)서원권무와도경찰부응원대(道警察部應援隊)합오십여명는송장면(松長面)일대를수사중인바 평북경무과장(平北警務課長)이친히부하경관을독려하는중이나 권과두명의종적은묘연하더라

德川一隊와別系?

별항보도한 의주금융조합(義州金融組合)습격사건에대하야는 범인의종적이 묘연함으로 그계통과및 요전에덕천군(德川郡)일대에나타낫던오인조권총대와의관계는 여러가지를 자세히알수업스나 여러가지점으로 추측하여보면 아니라더라

定州藥水터에도 三名突現

우리왓다간것을경관에게 알리라고부탁한후에잠적

지난십팔일오후아홉시경에군복과폭가튼옷에 권장까지 부친무장단세명이 정주군옥천면월오동약수(定州郡玉泉面月玉洞藥水)에나타나서수객(水客)중 돈좀잇는사람 수십여명을집려용(金勵用)이란사람의집에불러모하노코 현금잇는대로 권부내어노흐라하야 몃십원식모흔것삼백여원과 금시계 금반지등을 권부에아순후정주김용환(金用煥) 경부의아들로금년스무살된 학생이 약수에까서 잇는것을불러노코 너는경부의 아들이니당장에××하겟다고××선고를×온것을 엽헤섯든 사람들이학생은××업스니 용서하여 주라는청구와○○단중나만흔사람의 량해로 ××준후 주인김려용의 동생과박천군칭군속(博川郡廳郡屬) 고영준(高永俊)이란사람이 하오리(日服)닙은것을 보고「너는××××××××××××하려할즈음옷이업서×××하여달라고하면서그현장에서 옷을××탐으로 역시 용서하고 그곳에 모힌사람들압헤서간단한 강연이잇슨후 우리가왓든것을 경관에게 알리우지안흐면 당신들이 고생할터이니 곳알리

물레방아소리에 德川警官總出動

오인조○○단원 이 한번잡입한이래 평남덕천(平南德川)경찰은독도로신경이과민하여젓던중 지난십칠일집흔밤에동경찰에서는 십여명의무장경관을 동군일하면권성리(同郡日下面錢城里)방면에파견하야엄시비상한대활동을하엿스나아모소득도업시돌아왓섯다는데 이제그자세한것을탐문한즉 동일하면권성리엇던내(川)까에곡물(穀物)이업서볏혜세워두엇든물레방아는가잇섯는데마츰그날아츰부터비가나리어강물이나서물레방아를버쳣든나무가넘어지어 방아는곡식도업는헛방아를찌어 그요란한 소리가사방산에울리어엿듯을으면 총소리가탕탕하는데이소리를들은자위단는 은즉시○○단원의총소리가난다고그곳일하면주재소(日下面駐在所)에통지하엿섯든바또한경관이오는중에도차차츰그도수가빨라저서총소리가분명함으로 즉시본서에이사실로응원대를청하엿슴으로 덕천경찰은결국그와가튼보기드문일장의 희활극을연출한것이라더라(덕천)

偽造紙幣行使犯

혐의자로한명을잡엇다 奉天서온一學生

긔보=지난십팔일오후여섯시반경에평양부내본정에잇는지규옥(池奎玉)의잡화상에십칠세가량되어보히는 소년한명이 일원자리위조지폐를가지고나타나서『농금』세재를 사가지고 즉시종적을 감추엇다함은 본지에긔보한바이어니와 그후평양서에서는활동을개시하야십구일아츰여덜시경에부내행정(幸町)일광려관(日光旅館)에서 혐의자한명을검거하고방금엄중한 취됴를 하는중인데 그자는 본적을함남함흥군함흥면중화리(咸南咸興郡咸興面中花里)이십사번디에둔 김집필(金集弼)(一八)이라는중학생인데 지난 십사일아복을입은자인데 춤에중국봉텬으로부터들어왓는바 자긔집으로 돌아가는도중에려비관계로 평양에 머물럿든길이라더라(평양)

府撤水井에 小兒가溺死

시내욱뎡(旭町)일뎡목일백십일번디율산암지조(栗山岩之助)의 동재아들인 남대문소학교(南大門小學校)이년생 율산관 (栗山寬)(十)은십구일 오후팔시경에본뎡(本町)일뎡목구경성부청사(舊京城府廳舍)인녀자실업학교(女子實業學校)교뎡에서동무들과가티 놀다가 몰면이 행방불명이되엇슴으로 가티놀든아이들이 권긔학교수위 좌등부사마(佐藤富士馬)에게말을하야좌등이가 부근으로 차자다니다가그근처 경성부 산수정 (撤水井)압헤「계다나」가잇는것을보고그샘에 빠진줄알고 급히본뎡서에계출하야 즉시소방용『까소린』『펌푸』로배수를하고한시간후에시톄를 발견하야 즉시친가에인도하얏다더라

風波一過한 淑明女高開校

교무주임은사임하고선생만 재봉교사는조선녀자를오게 生徒거의全數昨日登校

그동안분규에 분규를 거듭하든시내수송동(壽松洞)숙명녀자고등보통학교는 데이학긔(第二學期)의 개학일인이십일부터드디어 개교케되엇는데 이날의등교학생수효는 전생도 삼백구십삼명중에 삼백륙십여명의 거의전부가등교하엿스며이십일부터는계속하야 수업을 개시하리라는데 동교당국자의말을 들으면 목하현안중(懸案中)인 사감(舍監)문데와 재봉교사 문데는동교 졸업생으로 현금충남모학교(忠南某學校)에봉직중인오경희(吳慶喜)(三〇)씨를 초빙하야 사감겸재봉교사를 겸임케하야 해결을 짓겟다하며문데의초뎜인 재등(齋藤) 교무주임은

犧牲者는一人도 내이지안케되겟다고

◇…喜色띄운淵澤學監談

본시리과(理科) 선생으로 교무주임을 겸안것임으로 이번긔회에교무주임은 당연한곳에서 적당한인물을 초빙하야다가 임명케하고 재등교무주임은 단순한리과 선생으로만 잇게하겟다는데 오랫동안 분규를 거듭하든숙명교의 동맹휴학사건은 일로써일단락을지엇다고볼수잇다 더라

분규를거듭하든 숙명교 (淑明校)의 동맹휴학사건이일단락을 지엇다함은 별항보도와 갓거니와 분규가해결된 요즈음에학생측의 희생자(犧牲者)나 나지안흘가하는 긔자의질문에 연택(淵澤)학감은 다음과가티말하더라 『희생자』가튼것은나지안케되엇습니다 누가잘잘못간에오랫동안학교가복잡하게되어서 사회일반에 대하야퍽 미안합니다 그리고오래간만에 학교문을 열게되니까 엇지마음이 깃분지몰으겟습니다 지금에 일으러서는전생도가 다아무소리업시 공부를하려왓스니까금후에또무슨문데가생기면 몰늘까? 지금가태서는 말씀하시는것과 가티희생자가튼것은한사람도날리치가업습니다……』

博川牛疫熾盛

이미륙십구두

평북박천군(博川郡)외사군에서발생된우역(牛疫)은평차만연되어 지난십오일까지에 륙십구두(六十九頭)가 발생되엇는바 평남위생과(衛生課)에서는이를방지하기위하야금후부터는려인숙(旅人宿)에서 사용하는 공동사조(共同飼槽)를권부폐지하고우차부(牛車夫)에게사조(飼槽)일개식을 각각 휴대케할터이라며(평양)

◇七月中讀書子二萬四千

아즉도문학서류를제일만히읽는다

지난칠월중 총독부도서관 (總督府圖書館) 의성적은개관일수가총삼십일일 예람인원 수가이만사천 사백팔십이인으로일일평균 이칠백구십인 이바권월에비하면 이천오백구십일인이증가하얏스며 도서종류는압에와 갓더라

▲哲學、宗教四五六 ▲敎育、社會一、二二九 ▲法律、政治六六六 ▲經濟、統計六二七 ▲語學、文學六、二〇五 ▲歷史、地理二、四二九 ▲理學、醫學二、九九三 ▲工學、軍事四六五 ▲產業、藝術六七七 ▲全集雜集一、九五一 ▲其他四三八 ▲合計一八、〇三五

太平洋會議出席 三氏今朝에歸還

오늘아츰일곱시에입경한다

『하와이』에열린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에 참석한 유억겸(兪億兼)김활란(金活蘭)백관수(白寬洙)의삼씨는 이십일일오권일곱시 경성역착렬차로 입경한다는 던보가이십일 하관으로부터도착하엿더라

京城車輪檢查 成績이不良

지난십일부터이십일까지경성부내의차류검사(車輪檢查)를하기위하야 경성부 데일계(第一係)에서는 총종원을 하야딸대에나노아가지고 동서남북 중 (東西南北中) 오부를각각담당하야검사하얏는데 그성적을 보면차륜총대수 일만폭천대중 검사를 한것이약칠할 가량으로서 무호감찰발견(無號監札發見)이검사한수중의 딸일에달함으로 권두감찰케하부수속을 하야 성적이 썩불량함으로금후부터는뎅긔이외에수시검사를하기로하얏다더라

鍾路署에서 裵德秀昨朝逮捕

신의주에서면소후잠적 朝鮮共產黨關係인듯

종로서고등계에서수일전부터무엇인지 비밀한 가운데대활동을계속해오든바 이십일 미명에일으러 동서길야(吉野) 경부보대삼(大森)부장이하 고등계원총출동으로 갑작이 활동을개시하엿는데 하야 시내모처로부터 일즉이북풍회(北風會)간부로잇든경남김해(慶南金海)에원적을두고당시안국동칠십팔번디(安國洞)배덕수(裵德秀)(三○)씨를데포인치하야다가즉시류치를시키엇다는데권긔배덕수씨는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이일망타진 되자즉

歐洲에쥐란리

박멸에로력중

요지음중구라파 (中歐羅巴) 일대에 비상이번식하는약일억만마리의『민구』라 (鼠)라고하는 쥐는서력일천구백오년에미국(米國)에서이입된것이라고불란서(佛蘭西)모유력한학자는말한다는대그쥐는번식이속하야요지음은『오스토리아』와남방디방(南方地方)에만흔대디산림관리(山林官吏)들은권력을다 하야박멸하는중이라더라

酒席서三人亂刺

주머니칼로세사람을씰러 酒興서레殺風景

지난십오일 오후십이시경에 평북희천군 희천면가라지도 참지신서당 (平北熙川郡熙川面加羅之洞島站知新書堂)에서 십여인이회합하야 술을마시다가 김석헌(金錫憲)이라는자가 김두순(金斗淳)을 향하야허무한 말로욕설을 하야 언쟁이시작되엇든바 결국여러사람의 무마로화해하엿는데 저테잇든최희묵(崔熙默)이가 김석헌을향하야『네가잘못이 아니냐』고한즉김석헌은이에분개하야 피차욕설을 하다가 서로구타가 시작되자피해자중한사람인 백창긔(白昌基)가 김석헌을 만류한즉 주머니칼을쌔어 백씨의 볼기작을찔러세치가량의 상처를 내고뒤를이어최희묵의 목과김원식(金元植)의팔을함부로 찔러중상케 하엿는데 피해자일동은 본서에고소를제긔하자 복뎐(福田) 부장 리(李)형사는 공의를 대동하고현장에 급행하야 피해자일동을응급치료하는일변 가해자는 본서에인치하고 피해자등은 당디정화의원에수용치료중인데생명에는큰관계가업다더라(희천)

모히密賣巨魁 大阪에서遂逮捕

밀매의화근을선케될듯 鍾路署員出張活動

시자최를 감추엇다가 지난삼월에신의주(新義州)에서일어난정단(正統團)사건의 련두 관계로 서대문서에 데포되후신의주디방법원검사국 (新義州地方法院檢事局)에서 예심면소 (豫審免訴)가되후 또다시자최를감추엇든중 그와가티 데포된것이라는데 종로서고등계에서는 조선공산당사건의한련루자로써목하엄중취됴중이라더라

종로서위생계주임(衛生係主任)고궁(高宮)경부보횡뎐(橫田)순사부장경괴도현사과 (京畿道刑事課) 산괴(山崎)경부보의세명은 지난번에 대판(大阪)과경도(京都)에출장하야동디검사국과경찰부의 응원을 어더가지고목하대활동을 계속중임으로 우선대판시동제천구남빈정풍괴 (大阪市東濟川區南濱町豐崎) 금자천삼랑(金子千三郎)(三七)외네명을 데포한후 경성디방부원장미검사정(長尾檢事正)의령장 (令狀) 으로 불일간경성으로 호송해오리라는데 권괴 금자(金子)라는자는 지난칠월에 종로서에검거되여모두히 네놈을 모다 종로서에 조천(早川)하총(下熊)의일단에게 마루모로모두히 네놈을공급한것으로 종로서에서는 모히밀매단의거두매단의화근(禍根)을근절시키려고 그와가티 서원을일본에까지파견하야활동케한것이다 더라

◇前六稅軍被捉 시내서소문뎡(市內西小門町)사번디중국인장의형(張義珩)(三七) 장옥성(張玉成)(三〇)두명는경성시내에서삼십확계수뢰도유명하든더인 때십팔일에본뎡서원이현행중에데포함과 동시에 가맥수색을한 결과 도박용구와 아편흡수긔를다수압수하고 목하 엄중취됴중이라고

疑問의箱子= 열어보니小兒屍

주객이술집에두고간상자에 生後七個月쯤된

십구일오후네시경에 시내평동오십사번디 (平洞)음식뎜 서간란(徐干蘭)의집에는 련당이 삼십세쯤 되어보이는 로동자커름차린남자가 무엇인지 상자하나를 엽헤씨고들어와서 두어잔술을먹고 밧그로나간뒤에 권괴상자를닛고간것을발견한 권괴 주뎜주인은 즉시쪼차나아가 그사람을 차저보앗스나 도모지뵈이지안홈으로 할일업시 그상자를열어본즉 그속에는 생후약칠개월쯤되어보히는 사내 어린아이시톄가잇슴으로 깜작놀래어 즉시서대문서에 통보한싸닭에 서대문서에서는 목하 그범인을엄탐중이라는데 대개생활난에 잇는사람이 장식비용이업서 그와가티 유기한것이라고 관측한다더라

◇淸雲洞에小兒屍 십구일오후륙시경에 시내청운동(淸雲洞)도립사범학교(道立師範學校)오른편비탈에서 죽은지이삼일쯤되어보이는 어린아이 시톄가잇는것을 통행하든사람이 발견하고 종로서(鍾路署)에 계출하야 계원이출장검시 하얏스나 시톄는 다썩어서 남녀의구별도 알수업다는바 목하범인을 수색중 이라고

幸運의蓄音機

이미보도한 시내 사직공원(社稷公園)에서 경성부(京城府)주최의 납량음악회(納凉音樂會)를개최하엿던바 그날추첨을행하야 축음긔(蓄音機)를타간사람은필운동(弼雲洞)일백사십이번디림남산(林南山)(二五)이라고

종명자

▲요사이일긔가첨첨서늘하야저서잇던염병에걸리기쉬운때이즉▲일반가뎡에서는음식물을주의하야병균을물리치는것보다도병균이침족을못하게 장위를 건강하게하야만된다는것이 엇던위생박사의 말이다▲그런데 종로 엇던아가씨한분은 구슬가튼칫아들을 귀엽다고 매일실괴를 일원각수치식 사먹이다가 어린애가 설사를하니까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실과도할약을산다고 분주하다나 ▲아모리약을산다고 한들실괴가약을 기다리고잇지도 안흘것이요 그런약도잇슬는지 의문이야▲그러지말고지금부터는어린아이에게 음식을주의하야 먹이면 장래칫아들덕을볼터이지

失戀女漢江投身

남자의랭대에원통하야 派出所에서救濟施療

십구일 오권아홉시십오분경에 한강인도교(漢江人道橋)우로부터 묘령의 조선녀자가흐르는강물속에 몸을던저 뛰어들어간것을 미리부터 감시하던인도교파출소(人道橋派出所)에서는즉시『보트』를타고 그녀자를 구원한후응급치료를하는일편취조하여본즉 이녀자는충북청주군 가덕면(忠北淸州郡加德面)출생인박남순(朴南順)(二〇)이란녀자인데 작년오월부터 시내종로삼정목엇더한 부자의아들과 서로련련한사이가되엇섯든바요사이에는권괴남자가 별안간 랭대를함으로 실련(失戀)의고통을 이기지못하야그와가티자살하라고한것이라더라

運動競技

極東競技順序

來二十七日부터開始

第八回極東올림픽競技大會는來二十七日부터上海『씨이오니아필드』에서下記順序대로所擧될터이더라

◇陸上競技=(一)百米豫選(二)圓盤投決勝 (三)하이•하들豫選(四)千五百米決勝(五)二百米豫選(六)走幅跳決勝(七)로一하一들豫選(八)走高跳決勝(九)四百米豫選

二十九日午後三時半 (一)百米決勝(二)砲丸投決勝(三)四百米決勝(四)하이하一들決勝(五)棒高跳決勝(六)一萬米決勝(七)槍投決勝(八)二百米決勝(九)홉•스텝쯔決勝 (一〇)로一하一들決勝(十一)八百米決勝

◇野球=八月二十七日 日本對中國二十八日 日本對比島 二十九日 中國對比島 三十日 日本對中國 三十一日比島對日本 九月一日比島對中國

◇庭球(單式) 八月二十七日=中國(A)對比島 (B)中國(B)對比島(A) 二十九日=比島(A)對中國(A)比島 (B)對中國(B) 三十日=(A)의勝者對日本(B) (B)의勝對日本(A) 九月 一日=日本(B)對勝者(B)日本(A)對勝者(A)

◁(復式)▷

八月二十八日中國對比島三十一日勝者對日本

◇빠스게트뽈八月二十七日日本對中國二十八日比島對日本二十九日比島對中國三十日日本對中國三十一日日本對比島九月一日中國對比島

◇쎌니뽈八月二十七日中國對日本二十八日比島對日本二十九日中國對比島三十日日本對比島九月一日日本對比島九月三日比島對中國

◇뜻뽈八月二十七日中國對日本二十九日日本對比島三十一日中國對比島 (上海電)

日本對加奈陀테盃戰

테비스盃庭球決勝戰은加奈陀選手『구로가라이르』兩氏와日本選手原田 鳥羽兩氏가接戰한바遂히優勝은日本選手에게歸하엿다더라

◇ 一三◇四一六◇七一五◇三一六◇十一八 【온트리올電】

關大軍來襲을中止

關大野球團은二十日부터在京各團과對戰할터이든바監督及選手의發病으로因하야當分間來襲을中止하얏다더라

鐵道水泳大會

二十一日(日曜)午前十時부터鐵道『풀』에서水泳大會를開催할터이더라

遞信庭球勝

遞信局對總督府殖產局庭球試合은十九日午後二時總督府構內코一트에서七組戰이擧行된바遞信局優勝하다

日本選手上海行

올림픽大會에出場할日本選手는長崎丸으로二十日朝入港, 午後一時發, 上海에向하얏는바排球選手는上陸하야長崎高等商業學校코一트에서猛練習하얏더라 (長崎二十日發)

神港野球日割變更

朝每主催 神港俱樂部野球日割은如下히變更

二十二日(午後四時半)對遞信 △二十三日(同)對殖銀△二十四日(同)慶熙(以上京城球場) △二十五日(午後四時半)對京鐵(以上鐵道球場)△二十六日(午後四時半)對京電 (京城球場)

中等野球戰

高松商 1=0 愛知商

準優勝第二回=十九日午後二十分開戰午後四時二十分閉戰場所甲子園

得點 高	100000000=1
得點 愛	000000000=0

7對0로 遂히高松優勝 對廣陵決勝戰

決勝戰=二十日午後二時分開戰 四時二十分閉戰 梅田(球)加藤 伊勢田(壘) 場所甲子園

得點 廣	0000000(0)
得點 高	0100300(…)

明年에 水道擴張

…쳐고 한번도 급수케한(給水制)… 논도커히 공급하는능력이 부족… 일즉이이것이 실현되기를희망… 시내숭삼동(崇三洞)일백이십이…

酒席殺人犯

…面坪里) 김천환(金千煥)(三)에… 시경에그동리 에잇는 음식뎜집… 인하야 류는칠월십오일에 이르…

거짓電報로

문새자녀 에끄통당한남자의이야기 (11)

女神? 惡魔? 戰慄할新女性 (二)

살뜰한정부를뒤에다두고도 순진한남자를롱락후에배척

見欺兒 S K S

이것도운명(運命)의환희(幻戱)라고할가요? 말하자면 탈은날을다케켜노코 그날그친구를 차저간내발부터 불찰이라고 하고십습니다 ××잡지사로친구를차자커갓더니 마츰아모도업고 나의친구혼자서 잡지편집을 하고잇는데 인쇄할날자가 멧칠이남지안엇는데다가 약간글솜씨 아는이들의 원고도 바닷스나가난한잡지사에서 원고료(原稿料)를지불하지못하니까 별로 이러탈것은업고 투고들어온것을 가지고엇더케 졸주룰려보는 모양인데혼자서쩔쩔매고잇섯습니다그리다가 아모리 밧부다고하여도반가운 친구가오래간만에 간까닭에 밧븐붓을 멈추고이야기를한참하는판인데 문밧게서 ××선생님게십니까하는 녀자의 부드러운 음성이 들렷습니다 그리니까 그친구는 문을열고인사를하며 들어오라고 하는데나는그목소리의 주인공이

엇더케생긴 녀자인지도

미처못보앗습니다마는작별의말로가만히 그친구의 엽구리를쿡찔으며『자네요새발전하네그려』하얏습니다 얼마잇다가 그녀자는 신을벗고 들어오는데슬적커다 보니 얼골이 매우유순하야보히는 신녀성이엇습니다 그런데그녀자는 그친구가 혼자잇거나그러치안흐면 그잡지사 동인하고안젓는줄알고 무심히 들어오다가 낫모르는 남자가안젓스니까 뜻밧게뵈어나는 스스러운안색으로 잠간주저하더니 들어와안저서도 아모소리업시 가만히 안저잇섯고나도 녀자를보면수집어하는터이라 수집은 김에담배를쇠내피어물고화첫가락으로재만 뒤적어렷습니다 나의친구는 그녀자에게 날이매우칩읍다는이야기를 화두로 이니야기커니야기하다가 나도 수집어하고그녀자도 거북해 역이는것을보고피차에 인사소개를하야 그예비로소 인사는 하얏스나처음맛난사람에게 할말이업서서 그녀자와나의입은 가장 약속이나한것처럼 다처젓습니다 그런지멧칠후입니다 어느날 저녁에그잡지사에서 피로연을 한다고청하여서 어느료리집에를 갓더니 그녀자도 초대를 바다서왓습되다 그래그곳에서 두번재맛나다 소얼골은 익엇스나 또피차에아모말도한것이업다 가술잔이돌를 딸아나는

차차얼골에 술긔운이오

르고취하기시작하니까이소리커소리 잔삭다리가 나오다가피차니야기문이 터지기시작 하얏는데 녀자가원데 공부를한사람이라 니야기가세상에 대한니야기화술에대한 니야기동속으로배운것은 업스나마 나도내가듯고아는대로는 니야기를 하야다소숙친하야진일이잇섯습니다 그런데 그녀자는 내니야기를매우자미잇게 들엇고 들은후에도자기집은 아모데이니 갓금놀러와서그런니야기나 들려 달라고하는것을 그대로 겸사하야버리고 말엇습니다 그리고 나는무심히 이저버리고 말엇는데 은행에서 년말년시(年末年始)에멧칠놀세입니다 하로는 밤에잡지사에잇는친구가 내려관에와서 놀다가 밤이좀이슥하여서 놀러 나가자기에딸아는나섯스나별로히갈만한곳도업서두사람이외투주머니에손을너흔채로종로네거리까지 무심코와서보니 방향을 정할곳이 맛당치안허서 서로처다보고 어되를 갈가하다가 갈곳도맛당치안흐니 어듸가서 먹을줄모르는술이라도 한잔먹자니까 그친구가 그럴것이아니라 D (그녀

D의집으로 가서놀앗습

자)의집이 여긔서얼마안되니거긔를가자고하여 결국은 그의말대로

너다 그래이삼차를 맛나게되니까차차로 어느덩도까지는 잔봇그려움이업서서 밤이이슥도록 세사람이 밀감(蜜柑)을사다가 먹어가며 니야기를하얏는데 그녀자의 책상에는 일본소설금색야차(金色夜叉)를펴노코또엽헤는 불여귀(不如歸)한권이 노엿섯습니다 그래서 니야기하는끄테 그소설니야기가나서 소설의 주인공의 평(評)이낫는데 세사람의 의견은각각자긔의 인생관(人生觀)을딸아 달랏습니다 그러나 남자두사람의말은 일치되는뎀이 며러잇섯고 그녀자는우리와반대로나가서 남자가 올타거니 녀자가올타거니 일종의남녀토론상이되엇섯는데 나종에는 그녀자는혼자두사람의 말을 당해내다못하야 금색야차도 작자가남자이니까 말하자면 녀자를조롱한것이라고하다가미긔홍엽(尾崎紅葉)씨가그작품을완성시키지못하고 중간에 죽은까닭에 후편(後編)이 세상에나오지 못하얏스니 엇더케될것인지 누가알것느냐하고 불여귀에 덕부(蘆花)씨는 웃웃내 녀주인공과자(浪子)의

간곡한정회를그리엇스

니 그것이비록 소설일지라도녀자라는것은 한번마음을쏘으면 죽는때까지도 변함이업다고 하고말엇습니다 그런지 멧칠후에 그친구와 또긔회가잇서서 그녀

…에비로소말일수업는자미를맛본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자가『미스』인지『레디』인지도 알수업섯스니 그것을물어볼수도업고 까닭업시 나혼자만 그것을아지못하야 매우궁금하게 생각하얏습니다 물론내가 그써그런경우에 잇서서 내자신으로 련모(戀慕)하는정이피어 오르기시작한줄이야알수업든것입니다

지나간날

김애경

가고말엇서요
먼-곳에
지나간 그날은
즐거운날

지나간날이여
거듭못올 어쩌
울지를마자
나의마음

바다와 산은
그대로 푸르건만
나혼자 탄식을하여야하나
이-마음써문에

가고말엇서요
펵-멀리
지나간날은
즐거운날

신◇식◇화◇장◇법 (一)

엇더케하면입버보이는가

눈의화장

요커음은화장술(化粧術)이매우진보되엇습니다 그러나 부자연(不自然)하고 보기실케 화장을하는사람이 만흔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곳화장에대한 본의미를아지못하고 쓸데업시 헛수고만하는 까닭인줄로생각합니다 그럼으로 화장에도 자연(自然)그대로 하지안흐면안됩니다 할수잇는대로 부자연한 빗이보이지안토록할것입니다 눈、코、눈섭、입、쌤할것업시그것을근본으로하고 화장을하지안흐면 우숩게보입니다

눈은 윤택이잇고 밝고유순한빗이도는것이조흡니다 이가티 하려면 항상잠을충분히자고 붕산수(硼酸水)와 소금물(食鹽水)로항상눈을 씨서 충혈(充血)이되지안토록 주의를하는것이조흡니다 그런데 화장을하는데에는눈가장자리를『솔』에 분(粉)을무쳐가지고 고루바르는 것이조흡니다 흔히 눈을감고 분을바른뒤에 그대로 두는까닭에눈섭어평한자리에는 분이 먹지를안코거문선(線)이생기어보기실케됩니다 그럼으로눈을 번쩍뜨고인편손가락으로 눈알에가죽을당기고 바른손으로 분을바를것입니다

엇던사람은눈초리에연주를발너눈이크게 보이도록한쓰는 사람이잇습니다마는 이와가튼것은무대(舞臺)에나가는분이아니면하지안는것이조흡니다 이가티연주를바르면 퍽 천하게보입니다

『샤리、퀸스』는『완파스』출신의한사람으로일약『폭스』활동사진회사의 화형(花形)이되어요사히에는『바누질풍파』라는 영화에분장하야 『맷취、페라미』와함께활약하는중이다 권세(權勢)조흔그유뎌와뜻장잇는 『두볼과』귀엽성스러운눈은보는사람으로하여금 이즐수업는인상을주게한사람일것이다

朝鮮農村相互扶助

原始共產時代의遺風研究【七】

華士

그러나또農村會議場所의다른하나로『머음사랑』의重要함을이저서는아니되다 이것은그家主가머음을두거나또는自家의農事上必要로設備하는것이니 農村生活에는이것이여러가지로利用되어 夏間만을除하고春秋多間에는이것이同里사람共同의會館과가티會議가잇는써마다여긔에서開催함은勿論이오 平常時에잇서서도談話室、娛樂室、知識交換室、農事評議室、藥草手工品製造場、또最近에이르러서는勞働夜學의敎室等의 實로多種多樣으로利用되어 洞里의輿論과文化(?)를産出하는中心地로서農村生活에는實로 不可缺의重要한機關이되어잇다 만일今日과가티貧弱하고疲弊한朝鮮의農村에잇서서 이머음사랑조차업다하면 우리農民의心理에는얼마나더만흔離散와寂寞의거믄구름이뒤덥혀잇슬는지몰을것이다 現下農民運動에 從事하는이로서는 이머음사랑의利用에만흔留意를할必要가잇는줄로생각한다

八

洞會의이약이를하다가 넘우나枝葉의方面으로못이나어갓다 다시 洞會의進行方法을본다하면 男中이메이도록세하게모힌中에서 或은안기도하고 或은서거도하며 또或은담배를피우기도하는中에서議事는進行된다 村中의長老數三人이會議의牛耳를잡는것도 事實이지마는 그러나 그에는現代式會議에서보는座長이라든가司會가튼것은업다 여긔서는누구든지自由로提案도하고討議도할수잇스나그것을探決할써에는 또決코現代式의擧手나拍手로서多數可決을하지아니하고도 自然히統一된意見을發見할수가잇스며 써로는或二個의相異한意見이提出되어서로싸호는일도업지아니하나 그것이貧農만모흰洞會에서는 언제든지서로讓步하야圓滿한妥協을보게된다 다만 現代의資本主義가農村에侵入한以來로 里中의豪農이나또는權力家가이洞會를利用하야 我物化하려는弊害가漸次로일어나는것은 또한엇지할수업는事實이다

이와가티自治的精神이横溢한 洞會를볼써에 그것은우리로하야금언케이나 原始共產時代에잇서서 우리의祖先이鬱蒼한森林속이나또는平濶한廣野의머리에서 몸에는풀로엮근옷을입고손에는산양하든활과槍을들은그대로 或은서기도하고或은안기도하야 自由로무슨일이나討議하든光景을그대로聯想케하나니 이것이 原時朝鮮과가티 極度의專制政治에乘하야 오즉搾取와浚削을일삼는貪官과汚吏의下에서는 到底히그萌芽도生치못할 原始時代로부터傳來한代表的美風의하나이라할수잇는것이다 만일 朝鮮의支配者群으로서이러한自治性을좀더助長하고좀더啓發하기에留意하얏섯다하면 農民그들은다만 民族的으로그自治的精神을크게發揮하얏슬뿐만아니라 洞會라는이적은機關에서 朝鮮의 政治上에만흔貢獻을하여왓슬것이分明한일일것이다 그러나 過去의支配者群은 이러케하기는 姑捨하고 돌이어그에餘地업는壓迫과制裁를加하야써 그러한自治的風俗을破壞하기에必死의力을다하야 洞會로하야금殆히世에그存在를認치못하게하얏스며 또비록그것이存在함을認한다할지라도 보는사람으로하여금 가장重要한意義를가진한的으로 生長讓임을忘却케하얏다 이로因하야우리는 朝鮮民衆의內部構成層을잘考察치못한外國人의皮相的批評家들로부터 朝鮮人은自治的精神이全혀缺乏한奴隷族이라는嘲笑를밧게까지되엇다 그러나나는이에서 돌이어支配者群의그러한專制가잇슴에도不拘하고 洞會라는機關을그만큼이라도保管하야가지고온그것만도 朝鮮의農民이如何히自治性에富한지를推知할수잇는것이라생각한다

邊境漫遊 (三)

雄基 松園生

一行은아즉것未到하엿다 나는다시露店에들어가沾背된땀을드릴제 二十五六歲밧게안되는그집女主人은 欣然히對客하여준다 비록村閭에무처허든진머리와다떨어진베치마에丹粧은하지안엇스나맑은눈、붉은입에慇懃한風致가업지안타 自元生長北胄女로話頭를쏘집어내어千波萬難

畓에茂盛한草穀은近來稀有의大豊을豫告하여준다 먹지안어도배부른듯 적이安心이된다 가다가 一行中에서議論이생겻다 그는元來의路程은靑鶴洞에서右便으로『감악고개』(柑嶽嶺)을넘어서古邑으로갈것이로되 一行中 柳君이自己의鄕里인長路洞本第에期於히들러야될事勢임으로萬一長路洞에들게되면靑鶴洞의左便으로서長路、下檜洞等을거쳐가게되으로豫定보다約十餘里迂廻하게되엿다 路程이멀으니 右便으로直行하자는派와親友를爲하야멀더래도長路洞으로함께가자는派가생겨兩派가한동안서로固執하다가結局柳君을爲하야모도長路洞에들어가게되어行路는左便으로기울어젓다 秀麗한靑山이四方을圍繞하고潺湲한淸溪水가골작을구비몰아흐르는靑鶴洞은일홈과가티仙味잇서그優雅美麗한風光을무에라말할수업다 이秀麗한靑山속에는無盡藏의石炭이파무처잇서天然의寶庫를일우엇다한다 그러나그寶庫의任者는발서우리가아니다日本人某某란者가上下一帶의石炭鑛과아울러다靑鶴洞一帶의炭鑛도모다한손에움켜쥐고時期만엿보는中이다 不遠에이곳으로汽車가通하게되면 이곳의石炭은自然採掘될機運이到來할것이다 産業第一主義를高唱하든某要路의大官은일즉北鮮을視察하고돌아가서이地方의未墾地를開拓하야産米增殖을圖하고 이附近(靑鶴

의말은끈첫다 無人獨中에靑春男女가對坐하여속살거림을보고실업슨친구들은猜忌半으로觀解하야窈然이야료만부친다 誤解도부칠업고辨明드無用이다 두어라兩人心思는兩人知得이니라 暫休한一行은다시攀하야嶺上에서淸風을抱擁하고紆曲한山路를나려달린다 韓國의運命을決定하여버리든日露戰役의激戰地帶를밟으면二十年前昔日을想像한다 그써가八月이라하니 지금의이靑山에銃砲聲이雜亂하고 지금가는이길가에말굽소리가擾亂하엿슬것이다 騎馬한露兵들이키자근日軍에게쫏기어다라나는光景이눈을감으면보히는것갓기도하다 아!悽慘한當時!慄然한態事! 바로嶺밑에에잇는『갈밧』(隘田)이라는洞里에서中食하고靑鶴洞골작을나려달린다 左右田

童謠 잠자는海棠花

元山 李貞求

明沙十里 해당화 잠을잡니다
바람부는 벌판에 동무가업서
안개거즌 섬들을 바라보다가
파도소리 겁나서 잠을잡니다

×

힌모래밧 해당화 꿈을꿈니다
『금모래 은모래 쥐고십허도
힘세인 물결이 겁이나련만
기다리는 벌나뷔 언제오나는고
꿈속엔 잠도요 갈봇삽니다

一九二七、八、四、明沙十里를차저보고서

목숨의노래

金海剛

一

적은새라도 룽에 갓치우면
한울을 그리워 울고
한낫 개아미라도 건드리면
몸을 옥으려 쏘거늘
어이함이냐? 이마음이여!
숨까지 크게 못쉬이니

二

가슴엔 피ㅅ멍이 불근불근
소사구을르고
흉은 빗속에 춤추려 날개
를 치거늘
오- 침침한 골방에 들이가
쳐 복기우는 이마음이여!

三

찬비 나리운다고 타든불ㅅ
길이 써지기야 하라마는
오-『방』두어쪽에 목롱을
졸될 이마음이여!
파리한얼골에 픈ㅅ긔는 죽
엇는가? 어이 숨ㅅ결은
약하여---

四

바위에 눌렷다고 쌔드려는
써리 옥개여질것인가?
소여질으는 불ㅅ줄기 언덕
을 문허트려 바다에 안기
우리니
새목숨 빗내려거던 피물
내뿜으라! 커-붉은해를 향
하야

五

멧번이나 바람은 새빗출
실ㅅ고 불어갓던가?
그써마다 가슴에 이는 불
ㅅ길은 얼마나 날뛰엇던고
오-졸라맨 검은사슬을 한
날에 쓴허버리리라

六

흉은 빗나는날개를 펼처
빗속에 춤을추며
한울을 소사올으는 붉은해
는 이가슴에 안기우리니
오-졸라맨 검은사슬을 한
날에 쓴허버리리라

五、一六
나의詩『목숨』篇에서

天氣豫報 晝一時發

◇溫度 二十日 正午 八三、三
◇比較 十九日 最高 八六、〇
◇日出前五時五二 晝間十三時二七
◇日入後九時一九 夜間十時三三

新秋風景

巴人

주먹

달밤에 이삭줍는 시골색시
방죽서들리는 머슴애 피리소리에
한울에 별만헨다、헤어도 헤어도 작고 이즈면서
이삭이야 또못주으랴 커도 무에라 나중에 노래불으네

가을커녁에 어듸서 가마귀 줍는소리
달가닥 달가닥 구슬두게 들린다
가난한 어느모자가 맛굼만 굽고안첫다
옷갈던지고 나는 상우에 주먹노코 한참보다

柘榴

그비치 조와、피빗가튼 그껍지빗 조와
비스듬히 열린 입속도 빨가네 새빨가네
안도 것도 다 빨갈때 마음이라 붉잔불가
타는듯、붙으짓는듯 그비치조와、柘榴가 내조와

새세상사람들

夕柳 作 影[illegible] 畵

【三二】

六의六

태호는 그의 주의가 날려저며 날로 새로운 방향을바라고 다름질을 처가게될사록 더욱복주에게대한태도는 맹렬하여지고 또 선생과 그 아버지의 완고한 생각으로 자긔의 자유롭게 진취하여가는 생각을 부자연하게 억제하려는것이 퍽마음에불쾌하야 점점 반항하여가는일이 만혓다 이럴사록또한그아버지와 선생에게는 태호의이가터 변하여가는 행동에대하야 장차엇더케하면 바로잡게 될가하는근심이 날로날로 더하여갓다

태호의아버지는 이러한 조치못한일이 일어나게 되는것은 도모지 태호의 어머니로 인한것이라고태호의어머니를매우원망도하엿다 그리하야 태호로 인한 부부간싸홈이자첫다 그러나 그부부간에도 의견이 서로 맛지못한 사이고

커도 쳐ㅅ간에는 소견이잇고 쳐소견과는 틀리는것이 잇스니까 반대도허는것아니오 그것이 진보지오』

『진보? 그대로진보하엿다가는 어미 아비 쌤치겟소그려! 아모리헌들 쳐 아비 소견이 쳐소견만못하단말이요?』

태호의아버지는 로긔가 만면하엿다 목소리는매우커커서 인케는 말이아니라호령이되고 말엇다 태호의어머니는 여긔까지는 싸화나오다가 밋처말대답을 발견치못하엿다 또한 언듯 듯기에 자긔의남편의말이옳은것은 아닌것가터들리엇다 그러타고 또한 태호가버려진것도 아닌것이엇다 만족하게 자긔의남편의 의견에 동감은 되지안엇지마는 또한반대할말도 밋처 나오지아니하엿다 그리하야 자긔의 마음에는 도저히 찬성하도록은만족지못한 그남편의 의견을대

보니까 서로 싸호면 싸홀사록 더욱 의견은서로반대방면으로 구더저가는것이엇다 엇던날태호의아버지는 이가티말하엿다

『그커 집안에서 조흔 선생압헤 한문이나 읽혓드면 자식이 커러케는 안버릴것을 공연히 학교니 또학교라도 그 야소교학교에다가 집어너허서 아무것도모르고 무식한것이 그만 어미 아비 말대답이나허게커모양이 되엇스니 한심치안소?』

이러한 자긔를 원망하는반면에또 예수교들반대하고신교육을 부인하는 말을 들을때에태호의어머니는 또한 극렬하게 반대를하엿다

『그애가 무엇이 버렷단말이요 내생각에는 조금도 버린것은 업습데다』

『어미아비 말대답하고 커멋대로 하는것이올소?』

『부모말도 글으면 안듯는게지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글으게가르칠 부모가 잇겟스며 설영 다소 글으다하기로 그압헤 말대답을 허는 그런 불순한버릇이 어되잇단말이오 상놈의자식이나 무식한놈들은 몰이어 안그러우 그래 공부하는놈이니까

『그래우그래!』

『그러치요 공부한놈이니까

향하기 위하야 좀어매한듯한 말로 며항을하엿다

『그자식도 글은것은 업습데다』

이말을 들은 태호의아버지는 더욱 로하엿다

『허 허! 커러니까 더욱그자식이 점점못되어 간다니까……집안에는 어미가 어칠어야 자식을 가르치는것인데…… 어미가 커디경이니 자식이 안버릴수가엇나!』

말을 옷내자 태호의아버지는 불쾌한 안색으로 밧그로 나가버리엇다

큰자에와서 이러한일이한두번잇는 일은아니다 이리될때마다 가정의 평화를위하야서나 또 진리를위하여서나 태호의 어머니는 가슴에 김히 한을 먹게되어 자긔의남편이 하로밧비예수를밋고 회개를하며 온집안이 화평히지나가게되기를 눈수지안코 간곡히 긔도를올리엇다

이러하야 이집안에는 항상 서로 합하기어려운 두의편이 흉려잇섯다 그러나 동리에서는 이가정을 배우 흠앙을하엿다 주인진사는 엄격하고청잔은인격자요 그부인은 현숙하고 인자한 터이오 그아들은 그러한 부모에게서 나흔만큼 두노가명석하고 위인이 수정타는 평판이자자하엿다